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안된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행된지 한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의 바탕인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은 상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은 현재 까지 12억2천600만원어치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발행액(20억원)의 60%

발행 한달동안 12억2천여만원어치 판매집계 대부분 유관기관·기업체·관공서 등 구입 시민 개별구입 액수 한자리... 대책마련 시급

를 넘어선 것으로 판매 시작 한달 여만에 거둔 성과로는 '기대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대부분이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시민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현황을 조

사한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억5천910만원, 대구은행 8천만원, 회성전자(주) 5천700만원을, 대구지하철공사 4천만원 등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구입한 경우가 전체 판매액의 90% 이상 차지했다.

반면 시민들이 개별로 구입한 재래시장 상품권 액수는 한자리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품권 가맹 재래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인들의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구동모 교수(마케팅전공)는 "상품권 판매처와 가맹 재래시장을 더 늘려 고객들이 상품권을 현금 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인들도 서비스 개선 등 지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기대·우성덕기자
saku@idaegu.com